

고려시대 왕실호위제도의 사적 고찰

Historical Review on the Security Service for the Royal Household in the "Goryeo" Era

이성진* · 김의영** · 이종환***

〈목 차〉

I. 서론

III. 결론

II. 각 시대별 고찰

〈요 약〉

고려시대의 왕실 호위라 함은 오늘날로 보면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에 해당한다. 고려시대의 독특한 정치제도가 완성되기까지는 신라시대나 태봉국의 제도를 답습하여 왕의 신변을 중심으로 경호가 실행되었다.

고려의 중앙군은 2군과 6위라는 8개의 부대로 편성되었다. 2군은 6위보다 위였으며 이는 응양군(鷹揚軍)과 용호군(龍虎軍)으로서 이를 근장(近仗)이라고 불렀다. 이를 오늘날의 공경호와 관련을 지어보면 근접경호에 해당된다.

고려 귀족 사회의 안정기에 귀족문화의 전성기를 누렸으나 그 뒤로 귀족분열과 상극대립으로 중앙통제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무신란이 일어나고 무신들이 집권함으로써 왕의 신변은 안정되지 못하였다. 최씨 무인집권시대에 이르러 무인집권의 안전을 위하여 도방을 설치했고 최우 시대에는 그의 문객들을 모아 사병들뿐만 아니라 정방, 서방, 등의 문신을 거느려 인사행정을 담당케 했다.

몽고에 항쟁하던 시대에는 무신통치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를 중심으로 항쟁했다. 최씨 정권시대의 그들 나름의 국가관과 국가 호위의 정신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왕실호위, 2군6위, 견용군, 도방, 정방

* 호서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 호서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 호서대학교 경호학과 초빙교수

I. 서 론

고대국가의 왕실을 호위하는 일은 경호를 담당한 군사만이 아니고 각종 행정과 군사 조직을 겸하였다. 그러므로 국력은 바로 왕실호위의 척도가 되었으며 군사적 강성은 바로 경호에도 직접 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신라의 국력이 쇠약해지자,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명목으로 나라들이 세워지니 무너져가는 신라는 나라를 지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도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고 후백제의 견훤(甄萱)과 고려의 왕건(王建)은 무너져가는 신라를 접수하기 위한 경쟁으로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한동안 지속된 전쟁 끝에 고려는 후백제를 물리치고 신라의 항복을 받아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통일 이후에도 고려는 북방정책을 세워 잃어버린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아 큰 제국을 건설한다는 꿈에 부풀어 있으면서도 안으로 왕실을 정비하여 안정시키고 각 지역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호족(豪族)들을 다스려 왕실을 안정시키기까지는 아직도 안정되지 못한 왕실 호위를 비롯한 국가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너무도 할 일이 많아 북방정책은 실행되지 못한 감이 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할 때 오늘날 경호(警護)에서 다루는 왕실호위의 문제 또한 고려왕조가 안고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호위제도를 고찰하는 일은 왕실호위와 일반군무가 미분화 상태에 있었던 시대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역사에서 고려가 차지하는 역사적 성격에 대하여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 후백제가 백제를 다시 건국한다는 정신으로 일으킨 나라였던 것처럼 옛 고구려를 이은 나라로서 광대한 영토였던 고구려를 다시 회복하려는 의욕이 왕성했던 것만은 확실하다.

경호제도에 있어서도 태조의 건국이념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좀 더 참신하고 광대한 나라의 출발에 있어야 할 그 제도를 이루어 보려는 의욕이 강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무정신은 중기 이후에 찾아보기 힘들었고 오히려 대륙에서 일어났던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등의 위력에 굴복하기 시작하였고 국력이 쇠하여 백성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신라로부터 이어받은 당문화(唐文化)의 잔재와 지방적 색채가 짙은 협소한 문화와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유교문화를 조선에 물려주고 멸망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에도 고구려가 누렸던 호쾌한 나라를 아쉬워하듯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넘쳐나던 북방정책은 고려에도 성취하지 못하고 쇠미한 나라를 근근이 475년간 그 명맥만을 유지했다는 것이 아쉽기만 한 시대였다고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민족의 진로와도 관련지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본고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점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 경호제도가 일반 행정과 군사제도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날의 경호와 같은 특성을 드러낸 것들을

혼재한 여러 제도와 의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역사 전체의 틀을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점을 스스로 약점으로 인식하면서 고려 전반의 통일국가의 명맥을 어떻게 유지하였는가를 경호문제와 관련시켜 보았다.

고려시대의 왕실호위 변천사의 시대구분을 일반 역사의 시대구분과 같이 하되 진단학회 한국사(진단학회, 1978)의 시대구분인 과도기, 재편성기, 전성기, 상극기, 변태기, 붕괴기의 구분을 하였다. 물론 역사 전반과 제도사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모든 제도와 시대적 사물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그 시대환경에 대응한 왕실 호위제도의 변천에 대하여 후삼국시대의 호의제도, 제도정비시대의 호의제도, 문신시대의 호의제도, 상극과 변란시대의 호의제도, 몽고항쟁시대의 호의제도, 왕조멸망 시대의 호의제도를 이상 6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II. 각 시대별 고찰

1. 후삼국시대의 호의제도

신라의 육두품 세력의 대두는 그 시대의 큰 변동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육두품은 신분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할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학문적인 식견에 의한 정치적 참여의 길을 밟게 되었다. 결국 그들이 주장한 개혁정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치원은 방랑생활을 하였고 최승우는 후백제의 신하가 되었으며 최인연(崔仁澆)이 고려의 신하가 되었던 것은 이러한 사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이기백, 1980). 신라의 군진은 원래 변경의 수비를 위하여 육지에 설치된 것으로, 북진(삼척)이나 폐강진(평산)이 그러한 것이었다. 해상에서 해적들이 심해지자,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청해진(완도), 당성진(남양), 혈구진(강화) 등에도 차례로 군진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청해진은 흥덕왕 3년(828)에 장보고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었다.

장보고는 원래 당에 가서 군인으로 출세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해적이 성행하여 신라인을 잡아다가 노비로 매매하는 일을 본 그는 분개한 나머지 본국에 와서 흥덕왕(826-836)에게 청하여 남해의 요지인 완도에 청해진을 두고 그 대사에 임명된 것이었다. 장보고는 비단 해상의 왕자일 뿐만 아니라 중앙의 정치에도 간여하여 왕위쟁탈에 영향을 미쳤으나 문성왕(839-857) 때에 그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려는 일을 계기로 그가 귀족들에게 암살당하고 청해진은 폐지되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신라의 귀족들의 힘이 막강하여 외부세력을 용납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장보고의 암살 후 그의 휘하 1만여 군대는 벽골군(김제지방)에 옮겨 재성이 억제되었으나 그와 유사한 처지에 있었던 청해진 이외의 군진들은 장차 지방 세력가들에게 군

사적인 힘을 제공해주는 근거지가 되었다.

장보고가 완도를 고향으로 한 호족 출신이었던 것을 보면 그는 자기 고향을 근거지로 하여 사병을 길러 군진을 설치했던 것 같이 보인다. 그 당시 지방에서 일정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대를 이어 행사하는 세력가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들을 성주라 칭하였고 이들 중에는 중앙의 진골출신도 있었지만 육두품 출신도 있었고 오랫동안 토착해서 살아온 촌주출신도 있었다. 이들은 군현의 행정체제 밑에서 촌락을 통제하는 구실을 담당해왔으나 신라의 중앙귀족들의 세력과 왕권이 약해진 시대에 와서는 강력한 촌주들은 세력을 확장하고 성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군현의 장관을 대신하는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조세권과 부역권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며 경제권을 장악했던 것으로 이와 같은 사태는 중앙정부의 경제적 기반을 좀먹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여 신라의 멸망을 재촉하는 요인이 되었다.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고 궁예가 태봉국을 세웠던 일은 신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각기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을 부르짖었으며 그러한 이념으로 건국하여 멸망해 가는 신라와 더불어 후삼국시대를 열었던 역사의 주인공들이었다. 그들의 야망은 후삼국의 통일이었으며 당시로서는 한반도의 통치와 더불어 잃었던 만주 땅을 되찾아 중국과 맞서는 대제국을 건설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는 우선 반도의 통일이었다.

그 이전의 원종, 양길, 기훤 등은 한낱 반란군 두목에 지나지 않았지만 견훤과 궁예는 표면상 백성을 구하고 새로운 이상국을 세우겠다는 큰 뜻을 표방하고 경영하려는 인물들이에 비하여 궁예는 신라의 왕자로서 정권다툼의 희생으로 목숨만을 건져 지방으로 물러나 성장하고 일찍이 중이 되고 세상이 소란하자 기훤에게 투신하였는데 기훤이 양길에게로 가자, 양길의 부하가 되었다. 양길의 부하로서 많은 군사를 모으고 양길을 타도한 후 후고구려를 세우고 국호를 태봉으로 고친 후 도움을 철원으로 옮기더니 당당한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가 양길의 부하로서 많은 무리를 모을 수 있었던 것도 대중 불교의 힘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가 태봉국을 세운 후에는 신라에 대한 적개심에 항복하여 오는 자를 모조리 죽임으로써 군주로서의 덕을 잃고 불교의 신비적 요소를 이용하여 스스로 미륵불이라 함으로써 폭군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부하들에게 축출을 당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자신을 배려하지 못하고 시종일관 자신의 고집스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세상에 악행으로 비치게 되었다는 데 있었다. 왕건은 송악 지방의 호족출신으로서 일찍이 패강진 혈구진 등의 신라의 변경에 세워진 군진의 무력을 배경으로 사회적 진출을 꾀하였다. 그는 궁예 밑에서 공을 세우고 시중(수상)에 임명되더니 궁예를 축출한 여러 장수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른 것이다. 고구려의 뒤를 이은 것은

로 자처함에는 궁예와 다름이 없었다. 수도를 자신의 고향으로 옮긴 후 스스로의 정치적 군사적 기반을 확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족으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하였다. 왕건은 궁예와 달리 신라와 친밀히 지내는 융화정책을 썼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견훤의 강력한 군사력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고려의 왕실 호위는 신라 멸망 이후, 후삼국의 전쟁 상황에서부터 왕이 손수 출전한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¹⁾ 이리하여 전쟁의 위기에서 왕이 호위되고 통일 이후 개경으로 도읍지를 이동하는 동시에 신라 귀족사회의 폐단을 없애고 새로운 기풍으로 왕실의 변화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견훤의 군사들이 신라를 공격목표로 싸웠을 때 왕건은 신라를 점령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견훤과 싸움으로써 신라인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당시 고창(안동지방)전투에서 백성과 그 군사들이 왕건에게 항복함으로써 그 때부터 견훤의 군사들은 힘을 잃게 된 것임을 교훈으로 삼을 만하다.

왕건은 견훤에 비하여 해상활동에 대한 경력이 있었고 전장에서 자신의 몸보다 부하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궁예가 축출된 후 후계자로 추대되었으며 후백제와의 불리하고 치열한 전투의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항복해오는 적들과 호족들을 너그럽게 대했으므로 대업을 성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2. 제도정비시대의 호의제도

태조 왕건(王建)은 후삼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통일 왕조를 건설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통일 이후에도 얼마간의 과도기가 계속되었다. 후삼국통일에 무공을 세운 공신들과 지방 호족들의 존재는 태조 때부터 우려의 대상이 되어 왕권의 안정을 이루어 놓지 못한 채 혼심요를 남겼다.

예측한 대로 왕실의 외척인 왕규는 제2대 왕 혜종(943-945)을 해하기를 일삼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혜종의 뒤를 이은 정종(945-949) 초에 서경의 장수 왕식렴의 군사력에 의하여 제거되었다. 이러한 사건으로 미루어볼 때 당시의 왕실호위가 얼마나 불안한 상태였던가를 알 수 있다. 왕식렴은 태조의 종제로서 태조 때의 옛 신하였다.

정종은 재위 4년 동안이지만 외척의 발호를 퇴치했으며 왕권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거란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광군사(光軍司)를 두고 군사 30만을 배치하였고 북쪽 경계를 위한 성축을 하여 국방에 대비하였다. 정종이 태조유훈에 따라 서경천도를 계획했지만 갑자기 죽음으로써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아우 광종(949-975)에게 위를 전했다. 광종은 고려의 역대 제왕 중 가장 자주적인 정신의 소유자로서 왕권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1) 이에 대한 예는 공산전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후백제의 군사에게 완전 포위되어 목숨을 건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하장수가 옷을 갈아입고 탈출하다가 대신 사살되고 왕이 목숨을 건진 일은 일화로 남아 있다.

그는 노비를 조사하여 본래 양민이었던 자를 해방시켰으며 중국 후주의 귀화인인 쌍기의 권유로 중국식 과거제를 실시하여 문신을 우대하는 터전을 마련했다. 이는 공신들과 무인들의 관료보다 문신들을 우대하는 관료제를 시행하여 이미 무신시대가 끝나가고 있었다. 이로서 후삼국통일의 공신들과 그 후손들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었다. 광종 때까지는 아직 신라와 태봉의 제도를 답습하고 있었으며 당의 제도를 참작하는 등 초창기적인 과도기적인 성격이 농후하였다. 문무의 제도가 미분화 상태였으며 지방 관제도 정비되지 못하고 있었다. 국초의 군사관계의 기구로는 순군부, 병부, 광군사 등의 기관이 있어서 순군부에서는 각 부대를 순찰, 보호하고 병부는 무관의 인사를 취급하던 곳이며, 광군사는 거란을 방비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사기관이었다.

그리고 광종에 이르러서도 지방의 군사를 통제하는 데에는 미처 손이 닿지 못하였고 재편성기의 성종 대를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나 지방의 세력을 제어하는 방편으로 기인(其人)제²⁾가 태조 대에 이미 습용되고 있었다.

고려 통일로부터 제6대 성종(981-997) 즉위까지로서 구제도를 답습하던 시대였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개편해오던 제도를 전반적으로 새롭게 하여 뚜렷한 고려국의 특성이 드러난 것은 제6대 성종과 제8대 현종(1009-1031) 때에 이르러서였다. 이때부터 제 10대 정종(靖宗)(1034-1046) 말에 이르는 60여 년간은 전체적인 재편성기라고 이른다. 이 때의 개편은 주로 한·당의 정치이론과 당대의 행정조직, 군사조직, 형률제도, 학교 고시제도, 토지제도, 화폐제도, 의례 성씨제도에 이르기 까지 모방함이 많아서 그 중에는 그 기능을 잃은 유명무실의 것도 있었다.³⁾

성종 때에 개편된 관료기구의 큰 틀을 보면 중앙관서를 맡은 삼성(內史, 門下, 尙書)과 국무를 분장하는 육부(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와 그 관하에 숙위(宿衛), 군국(軍國)의 기밀기관(機密機關)인 중추원(中樞院), 어사대(御史臺)가 있었다. 이 중 중추원(中樞院)은 숙위(宿衛)·군국(軍國)의 기밀기관이었으니 이는 왕명에 대한 출납과 왕궁의 호위·군기를 관할하는 부서로서 왕실호위의 직접적 관련부서였다. 이러한 위병이나 숙소를 지키는 보초병들은 전장에서는 병졸들이나 장수들이 번갈아 당번을 섰던 것으로 임시적(臨時的)이었던 것을 포함하는 직책을, 고려의 제도에서는 6부의 직속으로 두었다는 점에서 호위제도의 발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또 성종은 지방주군의 병기를 몰수하여 농기구를 주조케 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지방 호족의 무장해제의 효과가 있었다고 학계에서 보고 있다(이기백, 1980).

2) 지방관을 지방에 두어 다스리지 못하던 시대에 지방호족 출신의 주요인물을 중앙에서 근무하게 하던 제도.

3) 여기서 이러한 모방의 대강을 밝히고 이 모방이 아무런 기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도기의 준비태세가 있었음을 아울러 밝혀 도리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오랜 준비기가 필요했던 것은 고려가 통일을 이룬 뒤에도 지방 호족들의 세력을 완전히 통어할 수 있는 안정기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서 이루어진 시대적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진단학회, 1978).

성종시의 병제는 다음 목종(穆宗)(997-1009)에 이르러 이군육위(二軍六衛)의 중앙군의 편성으로 완성되었다. 육위는 좌우위, 신호위, 홍위의, 금오위, 감문위 등의 여섯 부대를 말하는 것으로, 좌우, 신호, 홍위의 3위는 수도 개경의 수비는 물론 변방을 지키는 일까지 맡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금오위는 경찰, 천우위는 의장, 감문위는 궁성 안팎의 여러 문의 수위를 맡았다. 이군인 응양군과 용호군은 친위군으로서 6위보다 우위에 있었다. 이 중 응양군은 모든 부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점도 있었고 다른 군사조직보다 정권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고려사>에는 국왕의 의장 및 경호를 측근에서 담당하는 군사들에 대한 “견용군(牽龍軍)”이라는 명칭이 있었다. 견용군은 국왕의 시위를 맡았다는 점으로 실질적 경호담당책임 또한 컸던 것이 아닌가 한다(이상철, 송상욱, 2004). 2군 6위에는 상장군과 대장군이 있어서 이들의 합좌기관을 중방(重房)이라 하여 문신들의 도당(都堂)에 대조되었다.

고려시대 경호의 실제 모습으로서 국왕행차 시 친위군의 임무별 구분에서는 박준석(2006)에 의하여 연구되어 있다. 그는 고려시대의 경호 제도가 시위-> 금군의 계통에서 지원부대와 경호부대로 나누어져 있고 경호부대에 의장대가 따랐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고려의 군사력은 북방정책을 중시하는 국가답게 위세를 떨쳐 거란의 침입 시에 서희의 담판과 같이 당당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두 차례나 요를 격파하고 개선하였으며 여진이나 기타의 족속과도 우위를 보이면서 북방의 안전을 꾀하였다. 이는 광종의 과거 제도 실시와 노비해방과 같은 선정으로 국민상하가 하나라는 의식이 국민정신 양양에 기여함은 물론 개편기의 적절한 개혁정책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3. 문신시대의 호위제도

태조 이래 계속된 점진적인 개혁과 제도의 확립은 신흥 고려를 발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제 11대 문종(1046-1083)대로부터 대외 평화정책을 써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안으로 문치에 치중하여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전성기에는 오히려 방심하는 틈을 타서 지배계급의 타성과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 첫째의 폐해는 경기(京畿)의 확대와 벌족세력의 확대로 귀족벌족정치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신라시대의 골품제도가 사라져가는 과정에서 새로 형성된 지방 족장들은 명실 공히 새로운 양반귀족으로 형성되어 갔다. 귀족들의 삶은 호화로웠으며 반면 이들의 생활품을 공급하는 평민들의 삶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 왕실 및 왕권과의 결부를 통하여 세력을 대대로 누리는 가문들이 생겨나 그 세력이 커져서 왕권에 도전하는 반란이 일어나는 일도 발생했다. 왕실과의 혼인을 통하여 그 세력을 누리던 인주이씨의 경우가 그 예다.

문치주의의 성과로 교육과 학문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당연한 결과다. 유학이 흥기하고 교육이 발달하는 중에 최충과 같은 해동공자라 일컬을 수 있는 정계의 원로가 등장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왕권이 강화되고 민심의 안정으로 왕실은 태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의 고조는 과거제도의 흥행으로 과열경쟁의 분위기를 자아내어 문제지를 사전에 뜯어보았던 부정사건도 있었다. 호화로운 귀족들의 삶 속에서 불교의 연기관념이 흥행하고 이궁(離宮), 이경(離京)의 시설이 확대되어 갔다. 그리고 불교계는 고승을 배출하였고 산업이 발달하며 송과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고려 귀족들의 삶이 풍성해졌다. 이 즈음에 숙종(1095-1105)에 이르러 여진족 완안부의 거역으로 충돌했으며 두 번이나 패했던 고려가 이에 대한 위협을 느껴 별무반을 조직하여 거국적으로 임전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별무반의 조직 내용은 전국의 각계각층의 신분을 초월하여 편성되었다는데서 그 특성을 드러냈다. 이를 계기로 고려의 전술을 뒤돌아 볼 수 있었다. 윤관이 여진족과의 충돌에서 패인을 말하기를 “적은 말을 타고 우리는 걸어서 다니며 싸우니 적을 대항할 수가 없었다.” 고 했다(高麗史, 96, 尹瓘傳).

이러한 전술상의 교훈은 비단 여진족을 대함에 있어서만이 아니었다. 과거의 전사에서 중국대륙이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을 항상 받아오던 것으로 농경민족의 약점이 바로 보병으로써 기병을 대항해야 한다는 점이 있었으니 어쨌든 고려는 한민족(漢民族)이 겪었던 전술의 체험을 십분 활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보병전(步兵戰) 위주의 전술에서 기병위주(騎兵爲主)의 신기군(神騎軍)을 창설했다는 점은 고려의 전술상에서 매우 의의 깊은 일이라 볼 수 있다(이병도, 1978).

전성시기의 고려는 대외정책에서도 놀라울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요와 금의 전투가 한창일 때 요가 고려에 후원군을 청했으나 고려는 과거의 은원관계가 있던 요나라였기에 금을 도울망정 요를 도울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금을 도와 금나라 사신 아지가 고려에 와서 형제국의 조약을 맺었다. 또 일찍이 고려를 부모국으로 섬겼던 여진이 일시에 강성해졌다고 하여 자기를 형, 고려를 제라 하여 서신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 오만한 태도를 보고 그 후의 금의 제청도 보류하고 말았다.

4. 상극과 변란시대의 호위제도

고려의 전성기는 예종(1105-1122) 말기로써 종지부를 찍고 다음 17대 인종(1122-1146) 때부터 제 23대 고종(1213-1259) 즉위 전후, 즉 최씨 정권확립에 이르는 약 90년간은 사가들이 상극의 시대로 이름을 지을 정도였다.

첫째로 귀족 자체의 내적 모순으로 상극적 상황이 벌어졌다. 문신 귀족들은 전성기의 타성과 부패 속에서 자라온 여러 모순과 상극적 상황이 이 시기에 폭발하게 되었다. 예종이 돌아가고 14세의 유소환 태자가 외조부인 이자겸의 옹립에 의하여 즉위한 일은 적

짧은 파장을 일으켰다. 예종 때부터 충신 한안인 일파의 벌족세력과 국구 이자겸 일파의 벌족 세력 간에 흐르던 암투가 이 때에 와서 폭발하였다. 이자겸은 한안인 일파를 타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대방공을 여기에 연루시키어 연루성이 있는 것과 같이 날조하였던 것이다. 원래 이자겸의 제2녀는 예종의 비가 되어 인종을 낳았는데 다시 제3녀 제4녀를 낳하여 인종의 비를 삼는 등 왕실의 외척까지도 독차지하여 왕실을 좌지우지하였던 것이다. 이를 꺼려한 인종은 측근의 신하를 시켜 그를 제거하려고 했으나 척준경의 민첩한 군사행동으로 실패하고 이자겸은 그 권력을 행사함이 더욱 횡포가 심하여 갔다. 그러나 도리어 일당인 척준경에게 쫓기어 귀향길에 올랐다.

이로써 인주이씨의 세력은 몰락하고 말았다. 둘째로 묘청 일파의 서경천도운동과 개경 정부의 항쟁이 있었다. 이자겸의 난은 왕권의 양화와 귀족 세력의 강대함이 빚어낸 사건이었다. 인종은 정변이 진압되자, 왕권의 부흥을 위한 정치적 혁신을 꾀하게 되었다. 게다가 여진이 금국(金國)을 세우고 고려에 종종 압력을 가하여 오던 때였으므로 대외문제에 있어서도 시련기로 접어든 때였다. 이러한 대외 대내의 형세에서 정치적 권력을 잡아보려고 한 것이 묘청(妙淸), 백수한, 정지상, 등 서경인(西京人)이었다.

묘청은 당시의 술승(術僧)으로 음양비술로 세인들을 혹하게 하고 천도운동에 앞장 선 인물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음양대가인 묘청을 왕실에 접근하도록 중간에서 공작한 사람은 서경 출신의 문신인 정지상(鄭知常)이었다. 정지상은 본시 서경의 진사출신으로 이미 예종 대에 발탁되어 인종 때에 언관으로서 활약하고 있었다. 그는 시문에 뛰어나 경연에서 고전을 진강했을 뿐 아니라 권신 척준경을 탄핵하여 축출한 바도 있다. 그는 음양가는 아니며 그런 류의 인물도 아니었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정치의 혁신과 천도운동이었다. 인종은 처음에는 의아하게 여겼으나 많은 사람들의 힘 있는 천거로 이를 허락했으며 그들의 설에 쫓아 도장을 설치하고 15조항의 유신 정교를 중외에 선포하였다. 그 유신 정교란 종교적인 교화내용과 근검저축, 민생을 돕고 국가의 평안을 도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행사는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서경천도운동을 전개하는 서막으로서 의의를 가진 것이었다. 이 운동은 여러 가지 종교적 원리를 제시하면서 서경으로 천도하면 국가를 중흥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인종이 이에 따르고 있었으나 묘청 반대의 거두인 김부식(金富軾)은 개경파(開京派), 유학파(儒學派) 등의 일파와 함께 이에 대하여 상서극간(上書極奸)하니 이에 따라 서경천도운동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하게 되고 인종은 마침내 서경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 자신들의 의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서경파의 거두인 묘청 등은 반란의 기세로 돌입하고 거병하여 중앙 정부를 위협했으며 혁명의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김부식(金富軾)이 통솔하는 관군이 서경을 포위하고 서로 공방 끝에 1년 만에 난은 진압되었다.

셋째로 정중부 등의 쿠데타와 이에 대한 반발, 그리고 무신상호간의 상극이 계속되었

다. 무인들의 쿠데타인 무신난의 직접적인 동기는 귀족정권의 문신을 높이고 무신을 천시하는 정책에 있었으나 보다 근본적 원인은 고려 귀족사회의 내부분열로 인하여 중앙통제력이 약화되고 부정부패로 백성들의 불만이 커 가는데 있었다(김창호, 2006).

문신을 죽이고 쫓아내는 데 성공한 무인들은 의종(1146-1170)을 몰아내고 그의 아우명종을 옹위하니 이제 무인들의 세상이 되었다. 그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높은 직위에서 미관말직까지 관직을 독차지 하였다. 그들의 힘은 군사적 실력에서 나왔다.

처음에 정권은 정중부, 이의방, 이고 등 3 거두에 의하여 행사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세력을 잡기 위하여 죽이고 죽는 상극이 계속되었다.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이고는 이의방에 의하여 피살되고 이의방은 정중부의 아들에 의하여 피살되었으며 정중부는 다시 경대승에게 제거되었다. 무인들은 경대승을 중심으로 도방(都房)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려했으나 경대승이 병사하고 그를 꺼려 지방에서 은신하던 이의민이 상경하여 정권을 독차지하였다. 한 때 이의민의 횡포가 심하더니 최충헌·최충수 형제에게 살해되고 20여 년간의 짧은 기간동안에 많은 장수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러한 변화의 종지부가 찍히고 고려조정은 최충헌의 집권기에 들어갔다. 그는 무인으로 출세하여 조위총의 토벌에 공을 세워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자신의 권력에 방해되는 인물을 차례로 제거하고 드디어 독재정권을 이룩했다. 그는 일대에 명종을 폐하고 신종, 희종, 강종, 고종을 옹립하였다. 그는 자신이 문벌 출신임을 잊지 않았다. 그는 무인으로서 정권을 잡았지만 앞서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쉽게 사라진 무인들과 다른 희귀한 인물이었다. 그는 왕씨의 왕위를 존속시켰다. 그리고 왕가의 외척이 되어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실력에 의존하려 하였다.

왕실이나 자신의 경호에 있어 그는 능수능란한 실력을 지닌 자였다. 당시 사원은 왕과 문신들과 연결되는 무력의 근거지였다. 그는 실력으로 사원세력을 억압하고 무력으로 자신에게 대항하는 승병을 격파하였다. 그는 정권의 안정을 위하여 농민들과 노비들의 봉기를 진압하였고 그들을 회유하여 관작을 주기도 하고 해방시켰다. 그가 노력하여 이룩한 최씨 정권의 기초는 그의 아들에게까지 계승되어 더욱 굳어져 갔다.

넷째로 각처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민란은 주로 농민과 노비의 봉기였다. 농민과 노비는 고려의 생산적 기층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민란은 무신들의 난과 그 동기에 있어서서는 다를 바가 없었다. 이러한 민란의 항거 대상은 물론 왕실이었다. 왕 자체가 아니라 왕에 의하여 다스리는 귀족들에 대한 반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왕실은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게 된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여기에 특히 무신들의 쿠데타 시절에는 목숨이 위태로운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상극의 시대에는 제왕들의 염려가 극도에 달한 시대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최씨 무인정권은 장기집권과 함께 막대한 권력과 재부를 누리게 되었다. 최씨

무인 집권을 뒷받침해 준 것은 사병이었다. 무인시대에는 누구나 집권하면 문객이 늘고 그 문객들은 권신들에게 충성을 다하여 후원을 얻어 출세의 길을 찾았다. 이러한 사병집단은 경대승에 이르러 조직화되었고 그것이 최충현의 도방의 모범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관군은 약화되고 최씨의 사병은 강대해져 갔다. 최우에 이르러 마별초라는 기병부대를 조직되었다. 최씨 정권의 군사적 배경을 이룬 것은 도방 외에도 삼별초가 있었다. 처음 최우는 무인들의 행패를 막기 위하여 야별초를 두었는데 이것이 수가 많아져 좌별초, 우별초로 나뉘고 몽고와 항쟁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쳐온 자들로 신의군을 삼더니 이를 합하여 삼별초라는 이름이 생겼다. 삼별초와 같은 사병을 양성할 수 있었던 경제적 기반으로 사전(私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씨는 무신으로써 만족하지 않았다. 무인정권이 안정되어가자 그는 정방(政房)을 만들어 문인들이 소속하게 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최우에 의하여 세워진 서방(書房)이었다. 이들은 3번에 나누어 교대로 숙위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최씨 정권은 무인들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문무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친위조직이나 무신정변 이후의 도방, 가병, 마별초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려시대에는 주로 군사적인 활동을 통한 호위조직이 그 중심을 이루고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전태인, 2005). 이 시대에는 상극과 변란의 위기에서 획기적인 일이 이루어졌으니 최씨 무인 정권에서 오늘날의 경호가 지닌 성격처럼 호위가 무술만이 아니고 문벌을 겸하게 되는 발전을 본다.

5. 몽고의 항쟁시대의 호위제도

북아시아의 유목민족으로 성장한 몽고의 정복대상은 남쪽 농경민족이었다. 고려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고려가 몽고와 최초의 접촉을 가진 것은 몽고에게 쫓겨 오는 거란을 공격할 때부터였다. 그 후 철레탑이 거느린 몽고군은 귀주에서 고려군과 부딪혔으나 이를 버려둔 채 개경에 임박하였다. 고려가 강화를 청하자 몽고는 달로화적(達魯花赤)을 서북면에 두고 군사를 철퇴시켰다. 그러나 최우는 몽고와의 항쟁을 결의하고 서울을 강화로 옮겼다. 이것은 바다를 두려워하는 몽고군의 약점을 찌른 것이다.

강화는 육지에서 보면 바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으나 고려군의 항전의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몽고의 강화점령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귀족들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호화스런 삶을 누릴 수 있었다. 당시 강화는 모든 시설을 개경으로부터 옮겨놓은 듯하였고 연등·팔관 등의 명절에 누리는 환락도 마찬가지였다.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왕실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경호제도의 좋은 방법이었을 것으로 고려된다. 이는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에도 같은 방식을 취하여 항거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무인정권의 대몽항쟁은 농민이나 천민들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몽고의 제1

차 침입 때 관악산의 도적 떼들이 항복하여 몽고와의 항전에 참여하였고 충주의 노예군의 항쟁은 특히 유명하여 귀족관리들이 도망치는 상황에서 끝까지 성을 지키며 용감히 싸웠다. 고려는 불력(佛力)에 의존하는 마음은 대장경을 다시 새기는 일을 감행케 했으며 천지신명에게 기원이 올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과 문신을 중심으로 몽고와의 강화(講和)의 여론이 일어나게 되었다. 강화의 여론은 무신들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경향을 띠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무신들을 타도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문신들은 일부 무신들과 결탁하여 마지막 무신 집권자인 최씨를 타도하고 몽고와의 강화의 길을 열게 되었다.

삼별초는 무인정권의 뒷받침이 되어온 군사들이었다. 이들은 무인정권이 몰락한 후 몽고와의 강화가 성립된 데 대한 불만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개경천도가 발표되자 삼별초는 즉시 반란을 일으켰다. 왕족 승화후의 아들 온을 왕으로 추대하고 반몽정권(反蒙政權)을 수립하였다. 강화도가 40년 동안이나 몽고와의 항쟁을 지탱해온 근거지였지만 이미 원종의 개경정부가 몽고와 결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그리하여 진도로 근거지를 옮긴 그들은 그 지역의 해안 일대를 지배하여 해상왕국을 이룩하였다. 진도가 함락되자 그들은 제주도로 건너가 저항을 꾀하였으나 제주도도 함락되자 4년에 걸친 그들의 항쟁은 끝나고 말았다. 이 삼별초의 항쟁은 고려무인들이 몽고에 대한 항쟁이 얼마나 강했던 가를 보여주었다. 무인 정권시대의 조직이 국가를 지키고 왕실호위의 방법이 되었다는 점은 하나의 제도적 장점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씨의 무인 정권은 국내에서는 거의 완벽을 기할 정도로 권력의 중심부이는 자신들의 호위의 체제를 2대에 걸쳐 수립하였고 왕이 허수아비인 것처럼 관군이 무력하던 시대에 사병을 양성하고 정방과 서방 등의 문인 세력을 키워 그들을 가신으로 하여 정권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왕은 여러 대가 바뀌더라도 권력은 바뀌지 않던 무인 집권시대가 몽고의 침입으로 흔들리게 되자, 끝까지 항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대몽항쟁이 없이 무인정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6. 왕조멸망시대의 호위제도

무인들이 정권을 장악함에 이르러 문인들은 어쩔 수 없이 출세를 단념하고 산천에 숨어 음주와 시가를 즐겼기 때문에 서사문학이 발전하고 긴장된 대외관계를 보면서 민족의식이 발전하였다. 종교계의 동향은 불교의 교종이 쇠퇴하고 조계종이 성립되어 장차 있을 성리학의 발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조정이 원에게 굴복함으로써 왕이 몽고식 성명을 가질 정도가 됨에 이르러 왕에 대한 명칭도 격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무인정권의 대몽항쟁의 의식이 살아나 고려왕국은 독립국으로서 지위를 끝내 유지하였다. 원은 일본정벌을 목적으로 고려에 정동행성을 설치하더니 일본 정벌을 완전히 포기한 후

에도 정동행성의 우두머리인 좌승상에는 자동적으로 고려의 왕이 임명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원과의 공적인 연락기구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정치에 간섭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간섭은 고려의 반대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영토의 일부가 원의 관할(管轄)하에 들어간 적도 있었다. 원의 고려에 대한 경제적 요구도 오랫동안 고려를 괴롭혔다. 고려에 대한 원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원의 세력을 등에 업고 행세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자라가고 있었다. 이들은 상업이나 농장 경영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꾀하는 무리들이었다. 이러한 농장의 증대는 고려의 재정을 곤핍하게 하였고 제도를 통한 지배세력의 공동이익은 보장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무인정권에 의하여 귀족세력이 붕괴된 이래 신흥 사대부의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대부들은 중앙의 관직자들 중에서 나왔지만 향리의 자영농민들 중에서도 나왔다. 이러한 사대부들의 힘을 빌려 공민왕(1351-1374)은 개혁운동을 착수했다.

그러나 권문세족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한 그들로 인한 폐해를 개혁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그는 대외적으로 친명정책을 쓰는 반면 대내적으로 권문세력을 억압하려 하였다. 무인정권이 붕괴한 후에도 그 시대의 인사권을 장악하던 정방(政房)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공민왕은 신돈을 사랑하여 그를 국사로 임명하고 국정을 총재케 하였다. 그리하여 권문세가를 축출하고 빼앗은 토지를 하층민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 일로 신돈은 성인으로 칭호를 받았으나 권문세가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였다. 정치가라기보다는 예술가로서 확고한 지위를 지녔던 공민왕은 아직 공고한 기반을 가진 권문세력을 억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안으로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하고 밖으로 왜구의 침범과 홍건적의 침범으로 인하여 고려는 공민왕의 죽음으로 왕권은 그나마 약화되었다. 권세가 이인임에 의하여 신돈의 비에서 출생한 우왕(1374-1388)이 왕위에 올라 구세력인 친원정책으로 돌아서자 이성계, 정몽주 등의 맹렬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국이 되었다. 우왕은 최영을 앞세워 명을 정벌하기 위하여 원정군을 출동시킨 바, 이성계의 불가지론을 듣지 않고 있다가 위화도 회군으로 인하여 세력은 역전되어 권력을 이성계 일파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이로써 고려의 국운은 저물어 갔다.

Ⅲ. 결 론

고려시대의 왕실 호위라 함은 오늘날의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에 해당한다.

그 당시에는 왕이 국가를 실질적으로 대표했고 왕의 신변에 위험이 닥쳤을 때는 국가의 존망과 직접관련을 맺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시대배경에서 고려시대의 군사제도 전

체가 왕실의 호위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려의 후삼국 통일까지는 전쟁 상황에서의 군왕에 대한 호위 및 신변보호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통일 이후 왕실을 지키고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함으로써 제 6대 성종에 이르러서야 왕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의 독특한 정치제도와 군사제도가 완비되기까지는 신라나 태봉국의 제도를 답습하여 왕의 신변을 중심으로 경호하였을 것이고 후삼국 통일 이후 통일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개경의 왕궁을 개축하고 지방호족들의 변란을 염려하면서 성종, 광종을 거쳐 성종에 이르러서야 지방호족을 통제할 수 있는 지방군이 편성되었다. 고려의 군사제도는 2군 6위의 조직을 가졌는데 2군은 6위의 위에 있어 왕의 친위군으로서 역할을 담당했고, 이 조직들 중에서 왕의 근접 경호를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고려시대의 호위제도가 현대 경호의 체계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고려의 2군6위 제도는 오늘날 공경호제도의 전통이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 귀족 사회의 안정기에 귀족문화의 전성기를 누렸으나 그 뒤로 귀족분열과 상극대립으로 중앙통제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무신란이 일어나고 무신들이 집권함으로써 왕의 신변은 오히려 안정되지 못하였고 최씨 무인집권시대에 이르러서는 2대를 걸쳐 도방을 설치함으로써 문객들을 모아 사병들뿐만 아니라 정방, 서방, 등의 문신을 거느려 인사행정을 담당케 하는 제도적 발전을 가져왔다. 이 시대에도 물론 왕실이 지켜지기는 했으나 이는 오로지 최씨의 집권체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씨 정권에 대한 호위나 다름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무인만이 아닌 문인의 활약도 있었던 점으로 현대 경호의 임무와 근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고려의 왕실호위는 통일에 참여했던 초기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했던 것이며 태조가 사망한 후 이들 훈공파인 군벌의 세력들과 지방 호족들의 왕권에 대한 위협도 없지 않았다.

실질적인 왕실의 국가통치의 힘을 지니게 된 것은 성종 이후 제도를 완비하여 중앙집권적 통치기능을 가졌을 때 이루어졌다. 그러나 왕실이 안정되고 귀족문화가 황금기를 이룩하였을 때는 왕실의 측근들과 귀족의 횡포에 서로 반목하고 왕실의 귀족 통치력이 약화되기에 이르렀고 무신들의 집권시대와 몽고의 침입 및 간섭으로 왕은 실질적 권한을 잃고 국력은 쇠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또 왜적과 홍건적의 침략으로 왕실의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대륙의 정세가 원에서 명으로 바뀌는 상황까지 겹쳐 구세력인 친원파와 신흥세력의 친명파가 다투는 가운데 민심의 이반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던 왕실 호위의 제도로 명목상의 제도일 뿐이었다.

끝으로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고대사회 국가의 경호사를 연구함에 있어 일반군무나 행정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왕이나 왕실의 안전과 관련이 있으므로 무력으로 왕을 가까이서 호위하는 경호 환경을 보다 넓게 설정하여 당시의 모든 제도들의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강성문(1993). 수도방위에 관한연구. 육사논문집.
- 고려사(1451). 정인지, 김종서 등 편찬.
- 김두현(1996). 경호학개론. 도서출판 쟁기. 80.
- _____ (2004). 경호학개론. 백산출판사
- 김창호(2006). 한국경호발달사. 백산출판사. 83-84.
- 김 홍(2001). 한국군제사. 학연문화사. 55.
- 전태인(2005). “고려시대 무예활동을 통한 친위조직연구”. 한체대 대학원 박사논문.
116-120
- 진단학회(1978). 한국사(16판), 을유문화사. 1-10, 112.
- 박준석(2006). 경호학 이해 백산출판사. 48.
- 안길모(1993). 불교와 세시풍속(초판), 도서출판명상.
- 이기백(1980) 한국사신론. 일조각. 115-6.
- _____ (1968). 고려 군반제하의 군인. “고려병제사연구.” 296.
- _____ (1969). 고려경군고. “고려병사설 “, 51.
- 이상철 · 송상욱(2003). 고려시대 견용군에 관한 사적 고찰. 용인대 체육과학연구논총.
제13집 제1호, 2.
- _____ (2004). 견용군과 금군의 임무에 관한 사적고찰, 한국스포츠리시치, 제
15권 제 6호, 74.
- 이홍직(1980). 국사사전. 글동산,
- 홍승기(1983). 고려초기 중앙군의 조직과 역할. “고려군제사 “. 육군본부.

ABSTRACT

Historical Review on the Security Service for the Royal Household in the "Goryeo" Era

Lee, Sung-Jin · Kim, Eui-Young & Lee, Jong-Hwan

The Guard over the royal household in the “Goryeo” era was the same as if was over the President or Ruler of a nation today. In those days, a king represented a nation and any threat to the safety of a king could bring the destruction of a nation and the dispersion of the people. by reviewing the change of the 2-Gun 6-Wi system of the era, it can be, summed up as follow, Ther will be suggestions.

The Guard might focus on a king’s personal safety in the wake of the system of the Silla and Taebong dynasties until the establishment of the Goryeo Dynasty’s unique political system.

“Goryeo” rebuilt the royal palace in Gyeongju to take the shape of unified country after its accomplishment of unification of the late three countries, Then it was afraid of the rebellion and uprising of local powerful clans, The country put them under control and organized the local army with them in the era of Kings, Seongjong, through the kings, Seongjong and Gwangjong.

The army system of “Goryeo” consisted of 2-Gun and 6-Wi, and 2-Gun placed above the 6-Wi played the role of the Royal guards, and among the organizations a certain army under the specific name of “Gyeongyong-gun” guarded the kings in the nearest position.

An aristocratic culture enjoyed its golden age in the period of stability of the aristocracy of “Goryeo“, but afterward in the confusion of the aristocratic disruption and incompatible confrontation the country lost its control, and faced military rebellions by treating civil officials well and ill-treating military officials The safety of kings become unstable with the grasping political power by the military officials, and “Dobang“ was established in the era of Choi’s family to grasp political power. In the era of Choi Woo, he gathered his men and organized his familys army with them and managed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with the civil officials of “Jeongbang and Seobang under his command. Such a fact shows the similarity to today’s task of guarding.

Considering the facts that “Sambyeolcho, the military ground of the military-men-rule, was at the center of the struggling against Mongolia and that even after the fall of the military regime, they rebelled and fought against Mongolia to the end, we came to know that the nationalism in the era of the military era was great.

In the transition of external situations from “Myeong“ to “Won“(Chinese dynasties), the conflict between the old “Won“-friendly power and the new “Myeong“-friendly power caused the weakness of the power to guard the royal household, and “Goryeo“ at last gave way to the newly rising “Joseon“ led by Lee, Seong Gye who won the people’s confidence.

Key word: Royal Household, 2-Gun 6-Wi system, Gyeonyeong-gun, Dobang, Jeongbang